

무거운 마음에서 가볍게 살자. 어제와 다른 나, 오늘과 다른 나로 변신하면 아름다다. 매일 거문고 줄을 조율하는 자세로 밤 흘린 보람을 부담없이 느껴보자. 저 공경한 가을하늘을 보면서, 원래 출가(出家)는 세상 사물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욕'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길, 또 무집착은 도(道)의 길이 자유인이 되어가는 길이다. 나는 실로 '자유인'답게 살려고 25년 전 출가했다.

그러던 95년 3월 27일 새벽, 안절부절 못하던 밤에 불안하여 서성대지고 잠도 못 잤다. 법당으로 서재로 붕붕 떠돌았다. 불현듯 시카고 포스터 병원 침대에 누워계신(치매병) 속가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30년전 내 부모형제 5남매는 미국 시카고로 이민갔고 나는 한달 전에 어머니께서 위

“사찰토지 공원서 제외”

조계종, 분리징수에 산문폐쇄·헌법소원등 강력대응

중회도 “입장료 폐지하라”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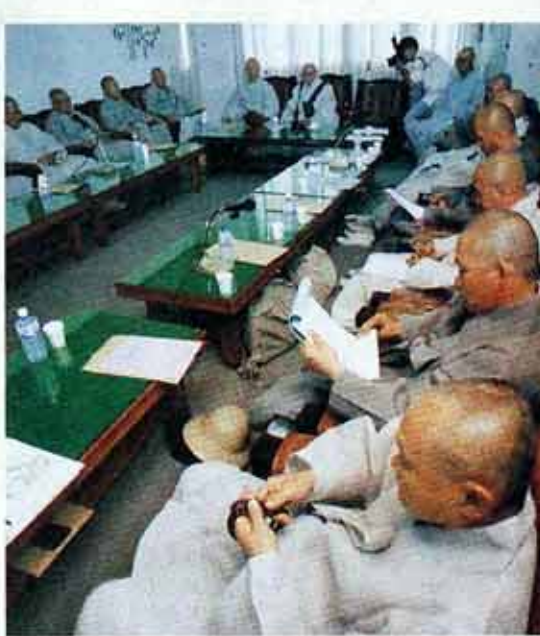
조계종이 국립공원내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대정부 입장을 결의, 분리징수 문제로 야기된 종단과 정부간의 마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3일 관할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주지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조계종은 △국립공원내에서 사찰소유토지를 제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한다. △공원폐지와 공원입장료 폐지에 대한 현수막을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위사함에 대하여 한시적 기간을 10월15일까지로 정하고 시정되지 않을때는 산문폐쇄를 강력대처한다고 결의했다.

않을때는 전국사찰의 산문을 폐쇄하고 전국본말사 주지대회 개최등을 통해 강력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계종은 우선적으로 공원입장료 폐지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공원내 사찰토지의 제외를 위한 법률감토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관할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주지연석회의는 정부에 대한 강력대응을 결의했다.

“합동징수원칙 동의”

원주스님-내무장관 면담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은 2일 오후 5시 조태영내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징수의 약속을 어기고 분리징수를 강행한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공원입장료의 폐지가 이 문제를 푸는 장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장관은 “합동징수의 원칙은 동의하지만 입장료의 폐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어려운 일”이라며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주스님과 조장관은 합동징수의 법적화와 입장료중 문화재 수리보존비의 사찰기여도에 따른 지급문제도 논의, 조계종과 내무 문제 관리공단의 4자가 위원회를 구성 검토하자는 의견도 모았다. 이에 대해 원주스님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승가대

군승선발고 지정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지하)가 군중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중앙승가대는 지난 6월 요청했던 군중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지정에 대해 1일 국방부로부터 인가통보를 받았다.

‘합희의 삶’을 살자

독하시다는 소식을 받고 다녀왔다. 이미 혼백은 흐리고 육신만 살고 일년이 지났다. 생(生)이란 한 조각 구름이요, 사(死)란 그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고 했다. 송광사 구산 큰스님께서 열반하시기 2년 전에 미국 전지역 순회법회 때 미국인 제자와 함께 미국 불심사에 며칠간 기거하셨다. “혼이 있고 육신이 없으면 귀신이요, 육신이 있고 혼이 없으면 송장이요, 죽는것은 한뼘 벗고 새옷 갈아 입는 것과 같으니, 웃을 웃



혜인

불도와 효도 둘 아닌데...

으면서 살아가지.” 그 말씀은 내어준 신산현 총격이었다. “뜻뜻히 담당하게 웃으며 참회하며 떠나가자 나도.” 무량겁을 두고 일대사(一大事) 되풀이 될 생사(生死). 이것이 우주의 작업이요 현상이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 공기를 타고 무겁게 울린다.

“아! 어머니!” 어떤 예감이 온다. 미국 은사님의 연민에 잠긴 숙연한 음성. “노(老)보살님, 이고 득과 하겠어.” 이어진 소식은, “생전에 소원 하나를 사들 불심사 방문하시는 것이었다.” 불효박심이 드러났고, 어머니께서 무조건 사랑하신 기억만 남았다. 그 이후로 불도(佛道)와 효도(孝道)는 풀이 아님을 깨닫고,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본다. 오늘 영정앞에 뜨거운 눈물로 참회하고 세속을 떠나 살지만, 혈육에 대한 강한 정은 숨길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금강경〉의 ‘법소유상 개시하망(凡所有相 皆是虛妄, 무릇 모양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사구계를 다시한번 조용히 새겨, 가슴에 넣는다. 〈불심사 주지〉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어 http://www.buddhaxia.com

고운사 나한전 후불탱화 ‘도난’

조계종 교구본사인 은해사 쌍계사 탱화도난에 이어 제16교구 본사인 경북 의성의 고운사(주지 법조) 나한전 후불탱화(200x134cm)가 2일 새벽에 도난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운사측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공양주보살이 예불을 올리기 위해 나한전 문을 열려고 보니 잠겨있던 자물쇠가 잘 단된 채 불상 뒤벽에 붙어 있던 탱화가 없어졌다는 것. 탱화의 제작연대는 미상이며, 현재 경찰이 탱화사건을 입수, 수사중에 있다.

조계종 제128회 임시총회(의장 설정)가 5일간의 회기

전국 성문화재 2천2백13점

전국에 산재한 불교문화재 국가·지방 지정문화재(성보)가 총 2천2백13점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6월부터 조사한 ‘전국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조계종단 소유·소재 성보는 1천1백4점이고, 조계종단 외 사찰과 박물관 등이 소장한 성보는 1천1백9점. 문화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10월말 〈전국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현황 보고서〉를 발간한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부여 무량사는 신라말 법흥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며, 보현성주사(지)는 선문구산(禪門九山)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 신라때 이름난 고찰이지만 여기에는 백제불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량사 5층석탑(보물 제185호)은 백제탑인 미륵사지 석탑과 정립사지 5층석탑을 본따 만든 백제계 석탑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도 수백년이 지난 고려때 백제의 옛 땅에 세워져 백제인들의 문화와 불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주사지에는 백제 법왕 때 창건된 오합사(烏合寺)로 백제 멸망 직전에 붉은 말이 나타나 울면서 백제의 멸망을 예시할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현재 무량사에는 보물 제356호로 지정된 극락전에 모셔져

있는 동양학대의 아이타상존불을 비롯 석등, 담간자주, 김시습 부도 등이 남아 있으며, 성주사지에는 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 중의 하나인 남해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를 비롯 석탑 4기, 석불, 석불대좌 등이 번성했던 옛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하늘은 높고 길가의 코스모스와 누렇게 익은 배이삭이 춤추는 가을의 입구에서 우아하고 격조높은 백제미를 창조했던 백제인의 불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량으로 이어지는 백제불심
9월 테마여행 - 무량사·성주사지

■ 참가 안내
○출 발: 9월 28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 비: 3만원(도시락 각자 지참)
○인 내: 임빙고(백제사적연구회장)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무안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일약물

불교식 추석차례 17면 국립공원 '관리 영망' 9면 강화에 외국인선원 건립 19면 절마다 문화상품 있어야 13면

얼굴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을 알려 온 기업 - 효성중공업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백대산업. 피부로 느낄수 없지만 꼭 있어야 할 중추산업.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이자 원동력입니다. 지난 35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묵묵히 이끌어 온 효성중공업. 멈추지 않는 도전의식과 기술창조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21세기를 실현해가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알고보면 가까이 있습니다

<p>전력사업부</p> <p>전력발전기 제조부터 수송, 설치, 유지보수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기전사업부</p> <p>전력발전기 제조부터 수송, 설치, 유지보수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자동차사업부</p> <p>자동차 부품 제조부터 수송, 설치, 유지보수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건설사업부</p> <p>건설공사 제조부터 수송, 설치, 유지보수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	--	--	---